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3학기 내일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13학기가 30일(월) 오후 2시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시작된다. 이번 학기 강의는 6월 1일(월)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실시된다.

오후 2시부터 90분간 계속되는 제 1교시 강의는 5학기부터 계속해 온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이어진다.

3시 50분부터 90분간 갖는 2교시 강의는 이번 학기 주제인 "경건과 절제"에 관한 특강이다. 2교시 강의에서는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 갱신", "경건과 리더십", "한국교회 회개운동", "IMF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 등 시사적이고 역사적인 고찰뿐 아니라 목회자의 언어습관·의상·건강·가정과 교회관

리·경건생활 등 실제적인 문제들도 다루게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인 이종윤 목사는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해 "국난을 당해 풍랑 만만 조각배처럼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1992년 3월에 시작하여 열세번째를 맞는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제 1교시	제 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 배경식 교수(한일신대)
	경건과 리더십 김기홍 교수(아신대)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 민경배 교수(연세대)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 이만열 교수(숙대)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 고무송 목사(열린천원교회)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 최래옥 교수(한양대)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 정장복 교수(장신대)
	건강과 절제생활 김일순 교수(연세대)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 관리 이연옥 이사장(서울여대)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 이상근 원로목사(대구제일교회)

제 9차 김치(KIMCHI)세미나 일정 확정

국내 주재 선교사·목회자 등 300여 명 대상으로

올해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는 국내에 있는 선교사역자를 대상으로 4월 16일과 5월 28~29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열리게 됐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은 올해 김치신학세미나를 이끌이 진행키로 하고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4월 16일 열리는 세미나는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한 선교동역자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회·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공동으로, 후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기로 했다. 초청 참가자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 선교사 및 목회자, 국내 학교(중·고·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사와 교수, 국내 신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등 모두 300여 명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인묘지 내 유니온교회당에서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I부 예배, II부 친교 및 식사, III부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서울교회·사랑의교회·명성교회·충신교회·강변교회·할렐루야교회·신촌성결교회 등 교회, 예장(통)·예장(합)·침례교·감리교·고신·OMF 등 선교회, 연세대·이화대·서울신대·창신대·총신대·ACTS·한남대·전주대·한동대 등 기독교 학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신촌성결교회와 함께 300명 분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이종윤 목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특히 4월에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땅에 첫발을 디딘 4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4월 중 이같은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5월에 있을 세미나는 우리 교단(예장)

소속 선교사 25명을 초청하여 제주도 이기풍 목사(한국교회 최초 선교사)기념관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주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예장통합측 선교위원회와 KIMCHI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치신학세미나는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인 재충전과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 유럽 7개국 목회자 초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러시아, 모슬렘권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목회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관련기사 3면)

올해 국내 주재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실제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사야

포도원의 비유

5장 1-7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사5:1-7).

1.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본문은 '내가' 라는 1인칭 단수형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교회로 비유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자랑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변해 결국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재목이나 화목으로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포도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동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이 포도나무는 심히 기쁨진 산에 심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닿는 곳입니다(사27:3, 요15: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까지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좋은 민족을 만드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또한 술들까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4절).

2. 배신자가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극상품포도를 맺기 원하셨으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나는 포도인

줄 알고 따먹어 보았더니 악취가 나는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멸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값이 있을지어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어 심히 기쁨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짖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인고...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5:1-7).

이종윤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리에서 평계만 대는 사람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은 악하고 게으른 백성이었습니다.

들포도란 변질된 포도입니다. 접목된 가지가 아니라 들가지에서 나온 열매로 은혜가 역사하지 않은 곳, 타락한 곳에서 나온 열매를 의미합니다. 들포도는 위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참인 것 같아 보이려 했지만 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마음이 많으니 유대인에게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메시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남다른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3. 배신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땅을 파거나 가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황폐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

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면 그 사람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끊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려와 형극이 난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창3:18). 이는 저

주의 소산물입니다. 포도원이 가지와 엉겅퀴를 손질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죄를 고발하거나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민족의 모습은 저주받은 민족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5:1-7).

포도원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하신 것은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거짓이며 위선이고 불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악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악과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와 공평을 이루는 참포도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순례길에서



교회 가는 길

장낙희 (권사, 제 10교구)



교회에서 가장 먼 다락방(충북 청주)에 속한 우리 가족이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해 나서는 시간은 아침 7시경. 아직 차량도 많지 않고 어둑어둑한 때다. 우리는 약간의 음료수를 준비하고 바쁜 마음으로 출발한다. 마음은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러 갈 때처럼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인지 차 안에서 내려보는 바깥 풍경들도 마냥 사랑스럽고 옆을 지나치는 차량들도 함께 교회가는 것처럼 늘 반갑기만 하다.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성준경 장로)의 직장을 이곳 청주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해 주셨고 우리는 이사하게 되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제야 나는 그동안 교회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아쉬움과 두려운 마음

이 교차되었다. ‘이제 멀리 이사갔으니 새벽기도, 소속된 부서에서의 봉사, 성도간의 교제, 전도 아니 무엇보다 주일 교회 출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고 제실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일까 다시 생각해 왔다. ‘그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온전히 감사해야지.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물질을 넉넉히 허락하시리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금새 시간은 8시 20분이 되고 우리 가족은 교회에 도착한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차량부 집사님과 안내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치 꿈을 꾸다 깨어난 것처럼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들을 접어 두고 오직 기쁜 마음만이 샘솟아 뛰듯이 교회로 들어선다.

김치세미나 참가국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 준 김치처럼 세계 교회의 잃어버린 영적 입맛을 되찾아 주기 위해 개최되는 김치세미나는 1990년 이후 해마다 문화권별로 목회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1996년 2월 세계 로잔(Lausanne)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세미나를 세계복음화의 최선의 전략으로 인정하고 김치를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인준했다.

구분	실시일	권역	참가국
1차	1990. 11. 2~11. 11.	동구권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로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2차	1991. 5. 28. ~ 6. 6.	중국어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3차	1992. 5. 26. ~ 6. 3.	힌두교권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4차	1993. 5. 25. ~ 6. 3.	아프리카	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디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잠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5차	1994. 5. 25. ~ 6. 3.	CIS	러시아
6차	1995. 5. 30 ~ 6. 8.	회교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7차	1996. 5. 21. ~ 5. 31.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사이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8차	1997. 5. 20, ~ 5. 28.	아시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9차	1998. 4. 16, 5. 28 ~ 29.	한국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

■ 오늘을 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자

박용현 (집사 제 1교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락을 같이 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계시리니 항상 우리들의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하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찮게 없는 티끌은 존재로 생각지 않으시고 모두 모두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며 영원에서 영원히 이르기까지 늘 미소짓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으며 기도하자!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깃들고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 하나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 마음 속에 작은 천국을 지으시고 늘 그곳에 와 계시다고 믿으며 기도하자!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무서운 곤경에 빠지더라도 용기와 인내로서 감당케 하시며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항상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응대 주시리니 가슴에 맺힌 불안한 감정들은 안개처럼 소리없이 사라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한없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종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라. 행동과 마음가짐은 길들여야 하거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들여보자! 항상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자! 그리하면 모든 원망과 시비도 없어지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온유함과 겸손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니 이것 모두가 다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자! 기도하며 살다보면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깨닫게 되니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살아가자! 구하면 주님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서울성경대학 이번 주 개강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가 이번 주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강좌는 사사기, 에스더, 히브리서, 빌립보서, 욥기 등이다.

서울성경대학은 온 성도가 일상 중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평일에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참가자가 학기를 이어 계속 수강하게 되면 성경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이번 학기에도 음악교실이 서울성경대학내에 개설됐다. 성도들이 신앙적 성숙과 아울러 음악 지식의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 음악교실에선 지난 학기에 이어 발성, 가창, 음악이론, 독보요령, 호흡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정원은 각 강좌별로 100명 이내이며 등록금은 강좌별로 5천원이다. 첫 수강자의 입학금은 5천원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교회 교육위원회나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서울성경대학의 본격적인 개강에 앞서 오늘 찬양예배 시 개강감사예배를 드린다. 각 강좌는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사사기	월요일 오전 10시	김정현 목사	3월 30일
에스더	월요일 오후 8시	민영수 목사	3월 30일
히브리서	화요일 오전 6시	이순환 목사	3월 31일
빌립보서	화요일 오후 8시	박귀환 목사	3월 31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2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이연숙 집사	4월 2일

■ 각 부서 이모저모 ■

◇ 고등부= 이번 주일(29일) 고 3을 위한 기도후원자 모임이 오전 11시 고등부실(402호)에서 개최된다. 이 모임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학생 한 명이 장로·권사·집사·선배·후배 등 9~10 명의 후원자와 절연하게 된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학생 및 재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치르는 11월까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하게 된다.

-최형렬-

◇ 대학부+사랑부= 15일(주일) 사랑부 집회 시간에 대학부 회원 전체가 참여해 한자리에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두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율동 등을 함께 하면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부는 올해 전 회

원이 매달 한번씩 교회 내 다른 부서들을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도움 일들을 찾기로 결정하고 이미 지난 달에는 사랑부를 찾은 바 있다. 대학부 회원들은 이번 사랑부 방문을 계기로 사랑부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할 것과 차량봉사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승현-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3월 새가족 환영회

* 3월의 새가족 *

지성희 이영자 정재범 손현주 이근일
정영주 박영희 안호상 장기현 조연희
송명원 홍영재 구 홍 전광영 김인숙
권영호 이희순 김민아 김이광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참 일꾼이 그림습니다

일꾼은 구경꾼처럼 방관만 하거나, 말꾼처럼 변명만 늘어놓거나, 싸움꾼처럼 화풀이만 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쏟아 맡은일을 수행해야 한다.

일꾼 되기도 어렵지만, 독주하지 않고 주인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일꾼 되기는 더욱 어렵다. 섬불리 잘한답시고 소갈 데 말갈 데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할 짓 못할 짓 함부로 집적대다가 일을 망쳐버려서도 안된다.

참된 일꾼은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 해도 좋은 일 하기가 어렵고,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의 인정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주님! 겸손과 성실로 맡은 일에 충성할 참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이명웅 집사(6교구 인천다락방)는 25일(수) 간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 ◆김영화 집사(9교구 홍마다락방)는 25일(수) 종로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김광옥·서영희 집사 가정에서 제공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2.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3.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